

SBS 사회공헌활동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2013 희망TV SBS 나에게서 시작된 나눔의 기적



5월 10일(금)~11일(토)까지 다양한 행사로 나눔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SBS의 신개념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2013 희망TV SBS>가 5월 10일(금)과 11일(토) 양일간 총 11부로 진행되며 15시간이 넘는 대장정을 통해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과 상암월드컵공원, '찾아가는 희망TV' 거리 홍보 현장 등을 연결하여 나눔과 봉사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17년간 이어진 <희망TV SBS>의 자취를 되짚어보고,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희망TV'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가수 씨스타, 배우 김영호, 개그맨 변기수, SBS슈퍼모델들이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성균관대학교에서 평화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까지 찾아가며 거리 홍보를 하였다. 씨스타의 효린과 소유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이후 시민들의 후원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소유는 "아직도 현지 아이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우리의 작은 후원이 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했고, 김영호는 "SBS '희망TV'에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서 홍보하러 나왔다"며 시청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커피와 화분을 배포하면서 시청자들이 <희망TV SBS>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SBS의 국내 사회공헌 사업인 '의료지원사업 스마일어게인'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드림월드'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여주고, 2013년 SBS 대기획인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건립' 진행과 희망을 얻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연을 통해 나눔이 만든 기적을 전하며 감동을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2003년 5월 10일(토)부터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 받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육병, 혈우병 등 이름도 낯선 134종의 희귀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고통과 환아 가족의 남몰래 눈물겨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내 환아 뿐만 아니라 해외의 환아와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절실한 사례들도 공개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환자들의 고통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나눠 줄 방법을 알아가게 됐다.

우 손병호 가족, 송선미, 이지훈 등의 연예인들도 '빅워크'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기꺼이 동참하였다. 특히 가족과 함께 나온 손병호는 "저의 큰 딸이 '어린이 희망워크 4km'에 대해 알려주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해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을 계기로 수많은 기부를 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희망워크 4km'는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 외에도 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한 '학교보르지 만들기', '식수체험', '아동권리교육', '내가 짓는 희망학교' 등의 행사도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희망원정대의 활동을 보여주는 한편, 강수연, 조민수, 김강우, 김아중, 윤시은 등 많은 스타들이 내선과 가봉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각국의 현장을 찾아 <희망TV SBS>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다. 올해도 <희망TV SBS>는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는 한편,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축제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임직원 봉사활동

경영지원본부 노사협력팀, 경영지원팀, 재무팀, 아카이브팀은 5월 10일(금)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된 '어린이 희망워크 4km'에 참여하여, <희망TV SBS>의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공중과 최초로 도입한 소셜 기부 방식인 '빅워크' 홍보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기획실 광고관리팀은 5월 15일(수) 파주 심학산 둘레길을 걸으며 팀원들 간의 친목을 다진 뒤 측량나무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6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교,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우 기고 | 'KOBIA 2013 전시회 스케치'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개발팀 이상진

올해로 23회를 맞는 'KOBIA 2013' 전시회는 지난 5월 13일(월)~16일(목)까지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렸으며, 국내를 포함한 35개국 830개사가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방송, 영상 관련 장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방송, 미래를 열다! Join the future wave!'처럼 디지털 방송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들이 선보였다. 특히 많은 이목을 끈 지상파 방송사들의 4K UHD 콘텐츠는 예년보다 훨씬 나아진 역동적인 영상도 선보였다. 흥미로운 전시물로는 '울트라 와이드 앵글 카메라 시스템'으로, 기존 HD 카메라 4대를 동시에 촬영해, 한 눈에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다. 또한 '실시간 워터마크 시스템'은 우리 방송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무허가로 유포될 때 자동 검출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우리 회사가 국내최초로 개발하여 많은 방송 기술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첫 선을 보인 'Pooq' 서비스는 다양한 단말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채널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기술과 서비스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KOBIA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고, 방송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라는 걸 느꼈다.

사우 기고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박종필 팀장

'甲乙丙.....은 한 몸입니다'

"발을 씻었을 때 뿌리를 내리는 것이 甲입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며 새싹을 틔게 하는 것은 乙입니다. 날따라 햇살을 잘 받아 봉우리를 뿜게 하는 것이 丙입니다. 못에 물을 모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丁입니다. 온갖 거름으로 비옥하고 넓은 토지를 만드는 것이 戊입니다. 세찬 비바람을 헤치고 스스로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은 己입니다.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하는 것이 庚입니다. 곡식과 재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辛입니다. 귀중히 보관한 것을 수시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壬입니다. 다시 씨 뿌릴 봄을 기다리며 관리하는 것은 癸입니다. 다시 씨 뿌릴 봄을 기다리며 관리하는 것은 癸입니다.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는 한 몸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감을느낌이 한창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갑'의 이익이나 출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 을은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는 10간의 구성 요소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교적 경향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이다. 10간은 공간적, 시간적 의미를 내포해 자연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설명해 종교적, 철학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10간은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갑, 병, 무, 경, 임은 양, 을, 정, 기, 신, 계는 음의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감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의 오행으로 나뉜다. 이렇게 음양과 오행 속의 갑~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엉켜 한 몸의 머리와, 가슴이며, 입, 눈, 팔, 다리인 것이다.

QuizQuiz

981호 사보 내용을 참조해서 퀴즈의 답을 찾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월 31일(금)까지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사내 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의 사우에게 수예당 화과자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5월 20일(월) 첫 방송된 일일극으로, 우여곡절 끝에 가장이 된 주인공의 대가없는 희생을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드라마의 제목은?

- ① 가족의 탄생 ② 못난이 주의보 ③ 원더풀 마마 ④ 당신의 여자

980호 정답: ④ 알랭 드 보통

칭찬칼럼이

저는 드라마지원팀에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니시리즈의 시놉시스와 대본을 통해 수지를 분석하고 제작비 조달, 적정한 집행까지 책임지고 있지요. 단순히 집행된 예산을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 예상되는 예산 실적을 빠르게 분석한 뒤,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와 사업 수입, 판권과 협찬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자체 제작일 경우 연기자와 스태프 계약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드라마 제작 전체를 컨트롤하는 제작 프로듀서입니다. 외주제작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제작사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관리부터 현장 진행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계획한 대로 제작이 잘 마무리되면 보람을 느끼게 되죠. 특히 작년에 방송된 드라마 <유령>은 공익적인 작품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이슈도 되었으며 제작비도 수익 원 절감하여, 촬영 중 다소 고생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본부 드라마지원팀 이영준

"드라마 제작, 설계가 중요합니다"

- 축하합니다 제작본부 제작2CPS속 류영우 결승(5월 12일) ■ 애도합니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평터니십팀 류상우 부장 모친상(5월 15일)

사보 980호 상품 수령인 명단

- ★ 당첨을 축하드리며 사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관장 홍삼분 (칭찬칼럼이) 제작본부 제작지원팀 김순천 (사우 기고) 편성전략본부 편성기획팀 금혜성
- 중근당 인코라인 (사보 아이디어) 기획실 광고관리팀 이명순
- 수예당 화과자 (퀴즈 당첨자) 보도본부 편집2 비연주 경영지원본부 공간혁신팀 박기동 경영지원본부 라디오기술팀 진한석 SBS이트랙 비주얼디자인팀 허보영 SBS뉴스팀 뉴스제작팀 김지연



색다른 소재와 품격으로 무장한 SBS 신작 드라마

가정의 달 5월을 장식할 가족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SBS 새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가 5월 20일(월) 첫 방송되었다. 첫 회가 나간 뒤, 막장 설정이 없는 따뜻한 가족드라마라는 호평이 이어졌으며 주인공들의 부모로 특별출연한 안내삼과 신애라의 안정된 연기와 아이들의 열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5월 14일(화) 개최된 제작발표회는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20분 분량의 영상으로 소개하여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이어지는 연출자와 배우 인터뷰에서도 따뜻한 가족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신윤성 PD는 <못난이 주의보>는 가족 휴먼 드라마를 지향하고 있다. 멜로와 코믹 요소가 모두 들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드라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청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갑작스럽게 동생이 생기고, 우여곡절 끝에 가장이 된 주인공의 대가없는 희생을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고 소통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내용의 <못난이 주의보>는 자극적인 설정이 없어도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뜻한 인간애를 보여 줄 국내 최초 법정로맨스판타지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6월 초순 첫 방송될 예정이다.

월매드 기대작 <황금의 제국> 첫 대본연습
<장옥정 사랑에 살다> 후속으로 방송될 새 월화드라마 <황금의 제국>(극본: 박경수, 연출:조남규)이 지난 5월 1일(수) 첫 대본연습을 갖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고수, 손현주, 박근형 등 실력과 배우들의 출연만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황금의 제국>은 2012년 최고의 히트작 <추적자 THE CHASER>의 박경수 작가와 조남규 PD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하반기 기대작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경제사 격동의 20년을 배경으로 욕망의 싸움터에 뛰어든 청년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함께 국내 굴지 재벌의 가족사와 후계자들을 그려낼 예정이며, 7월 1일(월) 첫 방송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핫(HOT)! 한 캐스팅으로 시선 집중

<내 연애의 모든 것> 후속으로 방송될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극본:박해련, 연출:조수원)가 캐스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최근 중영한 <내 딸 서영이>를 국민드라마로 이끈 이보영이 당차고 저돌적인 국선변호사를 연기하며, 2013년 최고의 대세남 이종성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돌아온다. <내조의 여왕>과 <시크릿 가든>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었던 윤상현은 정의감이 많고 열정적인 국선변호사로 나와 유쾌하고 발랄한 판타지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랑과 성장, 따

〈장옥정, 사랑에 살다〉 대체로운 멜로와 극적인 전개로 상승세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극본:최정미, 연출:부성철, 이하 장옥정)가 김태희, 유아인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와 함께 왕과 신하의 권력싸움으로 극의 긴장감을 높이면서 시청률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입중한 장옥정과 이순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가운데 동평군과 인현이 가세하면서 흥미진진한 멜로 라인이 형성되는 한편, 서인과 남인의 대립과 궤내의 갈등 관계를 부각시키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제작진이 밝힌 바와 같이 '멜로의 교향곡 같은 5개의 사랑 이야기'로 전개하면서도 장옥정과 이순의 내면을 보다 입체적으로 묘사하여 흥미를 높이고 있다.

이순과 인현의 극본 소식을 듣고 이순을 지키기 위해 독해지는 장옥정의 행보가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순이 옥정을 위해 지은 전각인 '취선당'을 배경으로 옥정이 숙원 첩자를 받고 본격적인 장희빈 탄생을 예고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현이 관련된 세력인 남인이 장옥정을 이용하여 이순에게 힘을 실어주고, 민유중의 세력인 서인을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장옥정〉은 매주 월, 화요일 저녁 10시에 방송된다.

〈출생의 비밀〉,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웰메이드로 호평

10년의 기억을 잃은 여자와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가 펼치는 휴먼 멜로드라마 〈출생의 비밀〉이 주연배우 유준상, 성유리의 열연과 깊이 있는 심리 묘사로 완성도를 높이고, 주인공 흥경두가 흠어진 가족을 복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면서, 웰메이드 드라마로 각광받으며 시청률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제작진이 기획의도에서 '출생의 비밀'이라 쓰고 '탄생의 비밀'이라고 읽는다고 밝힌 바 있듯이, 〈출생의 비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탄생에서 오는 기쁨과

〈추적자 THE CHASER〉〈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제49회 백상예술대상' 수상

드라마 〈추적자 THE CHASER〉(이하 추적자)와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지난 5월 9일(목) 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개최된 '제4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4개 부문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추적자〉는 방송 당시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높은 평가와 함께 시청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이번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극본상',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고, 탁월한 명성미를 보여주며 화제가 되었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연출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런닝맨〉의 유재석과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이 각각 'TV대상'과 'TV 남자예능상'을 수상하는 등 SBS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르에 걸쳐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쓰겠다.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방송될 때까지 믿고 기회를 주셨던 구본근 부장님, 조남국 감독님, 박근형 선

행복의 근원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녹이며 서서히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 〈출생의 비밀〉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경두가 인현의 도움으로 혼터를 벗게 되고, 인현이 변신한 경두를 보면서 잃었던 기억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이 펼쳐지며 더욱 흥미롭게 전개될 예정이다.

러브FM 〈그룹사운드 전성시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

러브 FM에서 방송된 SBS 라디오 스페셜 〈그룹사운드 전성시대〉(연출 : 신지식, 구성: 유재창)가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월 2일(토)부터 주말 아침에 총 10부작으로 방송된 〈그룹사운드 전성시대〉는 우리나라 밴드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신중현과 키보이스부터 송골매까지 되돌아보며, 그 시대의 문화상도 함께 돌아보게 하는 7080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룹사운드 전성시대〉는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0일(월)부터 2주간 스페셜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을 다시 한 번 찾아갈 계획이다.

가정의 달 특집 라디오 스페셜 〈오픈대담 - 들리나요〉

러브FM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라디오 스페셜 〈오픈대담 - 들리나요〉(이하 들리나요)를 준비했다. 〈들리나요〉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우리 주변 낮은 소리에 경청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특집으로 최영주, 박찬민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대담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번 특집은 차동엽 신부가 '신용하는 청년들의 외침, 들리나요?', '5060세대의 아픈 속내, 들리나요?',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내 몸의 경고가 들리나요?', '상처받은 마음의 소리, 들리나요?', 신달자, 원재훈 시인이 '어머니, 여자들의 조용한 비명, 들리나요?', '아버지, 남자들의 고독한 외침이 들리나요?'를 주제로 강연한다. 〈들리나요〉는 5월 둘째 주~넷째 주 토, 일 오전 9시 10분에 청취자를 찾는다.

생님, 손현주 씨, 김상중 씨 등 모든 배우들에게 감사드리고,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손현주 (TV부문 최우수연기상)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앞으로 또 이런 드라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정도로 작업 과정과 결과가 너무 행복했다. 노희경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힘든 감정 연기를 매우 잘해주신 배우들과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준 스태프 분들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보낸다"

이 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극중에서 내 딸과 아내 역할로 큰 힘을 주었던 이혜인 양과 김도연 씨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조남국 감독, 박경수 작가에게도 감사드리며, 한 톱 싹들. 함께 출연한 김성령 씨,

4MC 체제로 새롭게 단장한 '화요일의 예능신', 〈화신〉

〈화신 - 마음을 지배하는 자〉(이하 화신)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흥미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선보인 새 코너 '한 줄의 힘'으로 호평을 일으키고 있으며, 출연진 또한 새롭게 정비하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종신이 스케줄과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하면서, 직설적인 토크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구라와 배우 봉태규를 MC로 영입하여 4MC 체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제작진은 김구라의 투입으로 〈화신〉의 내용을 잘 살릴 수 있는 과감하고 솔직한 토크로 공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봉태규에 대해서는 "최근 녹화를 통해 봉태규가 밝은 에너지와 균형 잡힌 토크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 함께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화) 오후 4시, 동촌동공개방송에서 진행된 〈화신〉 녹화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김구라, 봉태규와 인터뷰를 가졌다.

▶〈화신〉 5월 7일(화) 방송에서 김구라씨 출연분 예고편이 나오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첫 녹화를 마친 소감은 어떠신지요?
첫 녹화 당시 신동엽씨, 윤종신씨, 김희선씨와 함께 했는데, 우선 신동엽씨와는 워낙 친근한 사이입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있지요. 윤종신씨와는 막역해서, 함께 진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김희선씨는 여배우라서, 사실 제가 여배우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는데, 이 분은 의외로 엉뚱한 면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토크쇼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재미를 선사해 주셨는데, 〈화신〉이 김구라씨 출연했던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화신〉이 앙게이트로 진행하다가 토크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부는 '풍문으로 들었소'로 트랜디한 스타일을 대상으로 향한 가십성 이야기를 풀어 흥미를 높이는 반면, 후반부에는 '한 줄의 힘'을 배치하여 진지한 토크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어,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한다고 봅니다.

▶〈화신〉의 다른 MC인 신동엽씨, 김희선씨, 봉태규씨와 조화를 이루면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진행 스타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음) 토크가 지루해지면 이를 놀리면서 재미있게 만들어주어서 적재적소에 완급조절을 하는 역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예전에 큰 일을 겪고 주로 케이블 TV에서 활동하다가 1년 1개월 만에 SBS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되, 경직되지 않은 편안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C의 조합도 좋아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봉태규씨가 〈화신〉의 MC로 합류하신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찬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출연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게스트로 출연한 뒤 주말에 〈화신〉 MC를 제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제의를 받는 순간 하고 싶었어요. 게스트로 〈화신〉에 참여했을 때 무척 재미있게 녹화를 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MC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동엽씨, 김희선씨, 김구라씨 등 베테랑 진행자 분들과 함께 해서, 큰 부담 없이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화) 방송에서 게스트로 출연하신 뒤, 이제는 〈화신〉의 진행자로서 녹화를 하시기 되었는데, 토크쇼 게스트로 나오신 적은 많았지만, MC로서 토크쇼에 참여하는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게스트일 때는 제 이야기만 편하게 하면 되지만, MC로서 프로그램에 임할 때는 다른 게스트의 말을 들어주고, 선봉리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배우는 중입니다.

▶기존 MC인 신동엽, 김희선, 김구라씨가 각자 뚜렷한 개성으로 시청자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봉태규씨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개성을 무엇이라고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른 분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릴만한 상황은 안 되고요. 시간을 두고 저만의 개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능 새내기로 첫 걸음을 시작하셨는데, 이에 대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화신〉 MC는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입니다. 배우로서의 일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 진행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재미있게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정글의 법칙 in 히말라야〉 첫 방송, 이색적인 볼거리로 기대 UP

5월 17일(금) 방만족의 8번째 도전기 〈정글의 법칙 in 히말라야〉가 첫 방송 되었다. 김병만은 네팔 출국을 앞서 "이번이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 일부러 사전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생존에 도전하겠다"며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첫 회에서는 김병만과 함께 노우진, 박정철, 안정환, 정준, 오지은, 김혜성이 출연하여 네팔에 도착한 뒤 차로 바르디아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들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방만족의 주요 여정을 히라이트로 소개하여, 히말라야와 네팔의 열대 정글, 다양한 종과 및 전통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볼거리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목) 〈정글의 법칙〉 제작진 및 출연진 일동은 〈정글의 법칙〉을 원칙으로 한 어린이만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시리즈(주니어김영사)의 인세 및 초상권료 천만 원을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에 전달하였다. 기부금은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식수 제공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사내 소식

'희망TV SBS' -보건복지부-SK에너지 사회공헌 MOU체결



5월 8일(수) 오후 5시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SBS와 보건복지부, SK에너지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SBS의 위원장 사장과 이음도 보도본부장, 홍순철 편성전략본부장, 박정훈 제작본부장, 장광호 희망내일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김영 장관의 2명, SK에너지 대표이사 박봉균 사장과 3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협력 내용은 SK의 장학사업과 '희망TV SBS'의 드림위드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들에게 양서와 독서캡트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SK에너지와 지역주유소 참여로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지원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SBS는 이번 사회공헌협약으로 기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으로 동참하는 기업 파트너를 확보하였고, '희망TV SBS'가 제시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여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BS KOBIA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 실시간 방송 콘텐츠 인식 기술 선보여

SBS는 5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한 '제23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세계 최초 실시간 방송 콘텐츠 인식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SBS가 선보이는 최첨단 실시간 방송 콘텐츠 인식 기술은 (주)케이엔비와 공동으로 개발한 HD급 실시간 방송 콘텐츠 송출 및 인식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5월 9일(목) 발행한 사보 980호에도 소개된 바 있는 '실시간 저작권 보호 송출 시스템'과 방송 콘텐츠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SBS는 실

동호회 협업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법우회



저희 동호회는 매년 봄·가을에 사원 및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사찰과 문화재를 순례하며 생활 속의 여유를 갖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토)에는 서산 개심사와 마애삼존불, 부석사를 다녀왔는데요. 현지의 절경으로 유명한 양빛꽃과 청빛꽃이 만발하여 순례의 즐거움을 더해줬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연록의 이파리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고, 힘든 일상사를 연못의 그림자로 내려놓고 건너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긴 즐거움과 큰 여유를 제공하는 모인, 절찰사는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환영합니다.



5월 7일(화)로 2차 금연클리닉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폐포에도 금연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패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금연에 도전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